

고등학교 학생의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A Study on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the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노 영 희 (Younghee Noh)*

목 차

- | | |
|---------------|--------------|
| 1. 서 론 | 4. 결 과 |
| 2. 선행 연구 | 5. 논의 및 향후연구 |
| 3. 연구설계 및 방법론 | 6. 결 론 |

초 록

본 연구는 급변하는 대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를 조사할 뿐만 아니라 문헌정보학과의 진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사서 및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도는 보통 이하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헌정보학과의 진로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장으로 생각되는 기관에 대해 공공도서관, 국가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취업하고 싶은 직장은 방송국 자료실, 국가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포털업체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헌정보학과의 진로에 대한 인지도는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선호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헌정보학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학생들이 문헌정보학과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문헌정보학과의 진로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문헌정보학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aise awareness of careers in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S) as well as to investigate current awareness and preferences for LIS Department as a strategy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university environment. To do this, a survey of high school students was carried out, with results as follows: First, awareness about the LIS Department and awareness about librarians in our country's high school students was very low. Second, for possible careers in LIS Department, students responded that a graduate of LIS department was likely to enter the workplace in public libraries, state libraries, university libraries, or school libraries, but they would like to work at broadcasting library, national libraries, school libraries, university libraries, public libraries, or portals. Third, awareness of the career path for the LIS Department showed a very large impact on a preference for the LIS Department. Therefore, students who have heard about the LIS Department are highly probable to select this department when they reach university.

키워드: 고등학생, 문헌정보학과, 인지도, 선호도

High School Student,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erception, Preference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논문접수일자: 2015년 7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5년 7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9월 1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4): 5-30, 2015.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4.005]

1. 서론

최근 인구구조의 급속한 노령화와 저출산 경향이 확대되면서 대학입학 학령인구는 2013년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교육부 교육부통계데이터베이스). 대학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더불어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학과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학과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08~2018)에서 장래 산업구조변화를 예측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향후 10년간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할 사업으로 산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통신업 순으로 제시하고 있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와 지식정보사회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 대학이 직면한 문제점을 사회문화적 요인, 기술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으로 나누어 분석해 볼 수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0). 먼저 사회문화적 요인을 보았을 때, 학령인구와 대학입학 정원의 역전 현상으로 대학구조가 큰 변혁기를 거치게 되었다는 것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출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기술적 요인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미래 국가전략 기술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학문, 산업, 기술 간의 경계가 붕괴되고, 융복합, 개방형 기술이 향후 학문과 산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경제적 요인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60%에 달하고 있어 장래 산업 구조 및 인력 수요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요인으로 대학관련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정부지원 사업이 특성화대학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학 내외의 환경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헌정보학과는 대학에 소속된 학과로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문헌정보학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학문연구와 교육에 충실히 임하여 학문영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대내외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위치를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람된 일을 추구하고, 중요한 사회적 활동인 직업을 가지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직업이라는 것은 개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합리적인 진로선택과 선택한 분야에서 일하고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인간에게 심리적 안정과 만족감을 주는 필수 조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계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직업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대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였으며, 설문을 통해서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도 및 진로 인식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문헌정보학과의 진로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문헌정보학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 연구

선행연구로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학과의 인지도를 심층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고등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주로 진로인식이나 성숙도 관련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도 연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를 제시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다룬 핵심개념인 고교생 진로선택 및 문헌정보학에 대한 제 인식, 학과인지도, 선호도, 진로인식 등에 대해서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관련된 선행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이러한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분야에서 수행된 유사연구로서 대학생의 진로인식을 조사한 연구로 문헌정보학과 재학생의 취업전망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안인자의 2013) 및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선호 직업 및 준비성 실태 분석 연구(이종문 2009) 등이 있다. 특히 이종문(2009)은 문헌정보학 전공학과들이 제시하는 직업분야 및 취업실태, 학생들이 생각하는 진출가능 직업분야, 진출희망 직업분야 및 준비성 실태 등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설문대상이 선호하는 직장 유형은 일반회사 29%,

공공도서관 16%,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 각각 10%, 대학/학교행정 9%, 공공기관과 출판/서점 각각 6%, 전문도서관 5%로 나타나 40%대의 전공일치도를 보였다. 문헌정보학과 재학생의 취업전망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도서관으로 취업하고 싶다는 비율이 40%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들은 사서직 고용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취업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설문응답자가 희망하는 업무로 '문화프로그램 등 업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현재의 교육과정에는 대체로 만족하지만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진로지도와 취업멘토링, 인턴십에 대해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넷째, 학생들은 학업성적, 어학능력, 각종 자격증 취득, 인턴 및 실습, 경력관리를 매우 중요한 취업요건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생들의 직장선택에 영향을 주는 조직·환경적 요인은 보수와 복리후생, 자기발전 기회부여, 근무조건과 조직문화, 조직의 발전가능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개인적 요인은 개인의 적성, 취업분야 지식 및 기술 수준, 사회적 대우 및 인식, 전공일치여부, 직장과의 거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서관에 대한 인식 관련 연구로 일반인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도 살펴보았다. 먼저 장덕현, 강은영(2012)은 부산지역 주민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현재 부산의 공공도서관 인프라와 서비스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인식과 요구는 매우 높은 반면 부산의 부족한 도서관 인프라는 이러한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활권 중심의 접근성이 용이한 도서관 인프라 구축, 디지털 서비스 확충과 자료 입수의 신속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도서관에 대한 사회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신문기사를 분석한 연구도 있는데, 김혜경(2011)은 20년간의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을 통해 도서관 관련 기사의 내용과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신문에 나타난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20년간 신문에 보도된 도서관기사는 도서관서비스, 도서관문화, 도서관정책 관련 기사의 순으로 나타났고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기사가 많았다고 하였다.

학과인지도 및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로는 국내 치위생과 교육과정 설정의 기초 자료를 마련할 목적으로 일부 전문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의 입학동기 및 입학 전 사전지식정도, 전공학과 선택에 대한 만족도 및 졸업 후 진로방향에 관한 인식 등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김화주, 임근욱, 김윤정 2006). 그 결과 치위생과 학생들의 입학 전 치위생과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치위생과를 알고 있었다가 44.7%로 나타났고, 치위생과를 선택할 때 정보를 얻은 곳은 인터넷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 모집요강이 28.1%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부산지역 고등학생의 작업치료과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에 의하면(송민옥 외 2010), 작업치료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28.33%의 응답자만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치료과 인지매체는 인터넷이 29.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3.27%

가 학과홍보지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대 산업사회가 급변하는 가운데, 직업사회는 다양화·다원화의 특징을 나타내며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직업사회의 변화에 따른 한국 고등학생의 전문대학 선호학과에 관한 연구(나이, 염인경 2012)에서는 수도권, 광역시권, 도·시권 등 모든 지역이 전문대학에서 전통적으로 선호되어 왔던 간호과를 비롯한 보건계열 학과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지역의 경우 간호과를 비롯하여 치위생과, 유아교육과, 호텔제과제빵과, 미용예술과, 헤어디자인과, 뷰티미용과 등 보건계열학과와 예체능계열 학과가 선호되고 있고, 광역시지역은 간호과, 치위생과, 치기공과, 국제관광과, 언어교정과, 기계자동차과 등이 선호되고 있으며, 도·시권지역은 간호과, 디스플레이전자과, 치위생과, 물리치료과, 화훼디자인과, 사회복지과, 의무행정과, 건강관리과 등이 선호학과로 분류되었다.

한편, 고등학생의 학과선택과 관련된 연구로,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과선택요인이 전공체험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서병도, 민정식, 권태윤 2012)에서는 고교생의 학과선택기준이 대학의 전공체험프로그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고교-대학 간 연계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전공체험활동프로그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과선택요인에 있어서 진학가능성, 취업 등 현실성을 중요시 할수록 전공체험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즉, 학과 선택에 있어 적성과 학습에 대한 흥미 등을 고려한 학생들은 전공체험활동프로그램에 만족감을 가지지 못한 반면, 진학가능성 및 취업가능

성 등 현실적요소를 중요시하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 진로와 관련되므로 진로 및 진로성숙과 관련된 선행연구도 분석하였다. 김충기(1986)는 직업적 소양, 가치, 지식, 기술 등의 습득을 통해 궁극적으로 직업 적성에 부합하는 행동과 판단력을 낳는 과정을 직업발달이라 보고, 진로의식성숙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하였다. 또한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2000)은 진로의식성숙은 자아의 이해,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계획과 진로선택을 통합·조정해 가는 발달단계의 연속이라고 하였다. 김계현(1995)은 진로란 자아의 이해, 일과 직업세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의 일생 또는 생애를 합리적으로 선택, 결정하는 일이라 하였고, 따라서 한국교육개발원(1992)의 진로의식성숙도는 개인의 진로선택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와 일과 직업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진로의식성숙도를 측정하는 연구들도 수행되었는데, 박향숙(2004)은 인문계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의식성숙도를 조사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문 및 자연계열이 예체능계열보다 준비성과 독립성에서 유의한 차이로 진로의식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성대(2002)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직업선택이 현실적이며 직업선택에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이후에 수행된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의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을 알 수 있다(이상선 2004; 김재승 2005). 성별차이에 따른 진로의식성숙도에 대한 것은 연구자에 따

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인문계학생과 실업계학생의 진로의식수준을 측정한 연구로, 이상선(2004)의 연구에서는 인문계학생들이 실업계학생들보다 진로의식수준이 높다고 하였는데, 안성대(2002)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던 것을 알 수 있다. 학부모 및 보호자의 직업이나 학력에 따른 진로의식수준을 평가하는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학부모의 직업이 전문적인 경우가 사무직인 경우보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진로의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상선 2004; 김재승 2005; 안성대 2002). 그 외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신의 성적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진로의식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재승 2005; 안성대 2002).

위의 선행연구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지도 조사는 수행된 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문헌정보학과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출가능 직업분야에 대한 인지도 조사는 수행된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학과인지도 및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도 많지는 않으나 치위생과나 작업치료과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를 보면 인지도가 30~45%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고등학생들의 학과선택요인은 진학가능성 및 취업가능성 등 현실적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진로의식수준은 부모의 학력, 경제적 수준, 계열, 자신의 성적, 부모의 직업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지도를 분석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연구설계 및 방법론

3.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을 수도권, 중부권(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제주 포함)으로 나누고 각 지역별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2개씩의 고등학교를 설문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총 8개의 고등학교로부터 약 120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되, 1학년, 2학년, 3학년에 각각 30~40명씩(학급규모별)을 설문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기간은 2015년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연구자가 직접 각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직접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정된 학교의 사서 선생님이나 담당선생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설문의를 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선생님이 직접 교실에서 설문을 하고 회수하여 반송해 주었다. 배포된 960부 중 749가 회

수되어 78.02%로 나타났는데, 이는 설문지를 평균 120건씩 배포하였으나 학급규모가 작아 40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나머지는 무응답으로 반송되었기 때문이다. 각 학교에서 회수된 총 749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748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3.2 설문내용 및 분석방법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설문지는 크게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 사서에 대한 인지도,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도, 문헌정보학과의 진로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 그리고 기타의견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기타의견은 문헌정보학과, 사서, 지식정보관리자와 관련된 질문이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 구성

조사영역	조사내용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	성별, 학년, 계열, 거주권역
사서에 대한 인지도	사서였던 인물들에 대한 인지도
	사서의 또 다른 명칭들에 대한 인지도
	사서의 세부 전문가 유형에 대한 인지도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도	문헌정보학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문헌정보학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문헌정보학과를 알게 된 경로
	문헌정보학과 및 도서관학과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4년제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했을 때 2급정사서 자격증을 받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지
	사서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만 사서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지
문헌정보학과 진로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	25개의 문헌정보학과 진로에 대한 인지도
	25개의 문헌정보학과 진로에 대한 선호도
기타의견	기타 문헌정보학과, 사서, 지식정보관리자와 관련된 질문이나 의견

첫째, 조사대상의 일반사항, 문헌정보학과 및 사서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문헌정보학과 진로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의 일반사항에 따른 문헌정보학과 및 사서, 문헌정보학과의 진로에 대한 인지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정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3.3 연구질문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헌정보학과 및 사서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인지도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문헌정보학과의 취업률이 타 학과에 비해 비교적 높고 학과 이탈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입학경쟁률이 낮은 이유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아마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도나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후 취업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인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도 파악을 통해 향후 문헌정보학과의 경쟁력을 전체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RQ 1: 고등학생들의 사서에 대한 인지도는 어느 정도인가?
- RQ 2: 고등학생들의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도는 어느 정도인가?
- RQ 3: 문헌정보학과의 진로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는 어느 정도인가?

RQ 4: 문헌정보학과의 진로에 대한 인지도는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위의 연구질문에 대해서 논의부분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답을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4. 결 과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과의 진로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이고자 수행된 것이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고등학생들의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도 및 진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인구통계학적 특징, 고등학생들의 사서 및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도, 문헌정보학과의 진로에 대한 인지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4.1 인구통계학적 특징

인구통계학적 특징에서는 설문응답자의 성별, 학년, 계열, 거주권역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여 파악하였다(〈표 2〉 참조). 먼저 설문응답자의 성별을 보면 남자 51.91%, 여자 48.09%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의 학년을 보면, 2학년이 35.46%, 3학년 33.29%, 1학년 31.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학년의 비율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설문응답자의 고등학교 계열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으며, 인문계고등학교 90.82%, 특성

〈표 2〉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항목		N	%
성별	남	407	51.91
	여	377	48.09
학년	1학년	245	31.25
	2학년	278	35.46
	3학년	261	33.29
고등학교 계열	인문계고등학교	712	90.82
	특성화고등학교	72	9.18
거주권역	수도권	346	44.13
	중부권(충청, 강원)	122	15.56
	영남권	197	25.13
	호남권(제주포함)	119	15.18

화고등학교 9.18%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설문응답자가 거주하는 권역을 4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수도권이 4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남권 25.13%, 중부권 15.56%, 호남권 15.18%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서울 및 경기권을 포함하여 선정했기 때문이며, 학교의 규모도 커서 응답자의 수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에서 특성화고등학교가 설문대상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4.2 사서에 대한 인지도

사서에 대한 인지도는 사서가 나온 영화들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도서관 사서였던 인물들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사서의 또 다른 명칭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전문 사서의 유형에 대한 인지 정도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질문이 사서에 대한 인지도를 측정하는 정확한 질문이 될 수는 없지만, 고등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사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문항이 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사서가 나온 영화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질문을 했는데, 사서가 나온 영화들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는 고등학생들이 여러 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를 통해서 사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서가 등장하는 9개의 영화를 제시하고 이 영화들에 사서가 나왔다는 것을 인지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해리포터시리즈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몬스터대학교, 투모로우, 플랜맨, 미이라 순으로 나타났다.

4.2.1 사서였던 인물에 대한 인식

학생들은 교육과정에서 여러 인물들에 대하여 학습을 하면서, 해당 인물의 직업도 배우게 된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특정 인물의 직업이 도서관 사서였던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서에 대한 관심정도를 알기 위해 과거에 사서라는 직업을 가졌던 인물들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노자가 39.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마오쩌둥 37.76%, 벤저민 프

랭클린 30.49%, 에라토스테네스 25.38%, 로라 웰치 부시 19.13%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알고 있다가 20.27%로 모른다가 79.73%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표 3〉 참조).

4.2.2 사서의 명칭들에 대한 인식

전통적으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한 명칭으로 '사서'가 있지만, 사서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정보유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명칭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였다(〈표 4〉 참조). 그 결과 사서가 4.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보전문가 2.497, 정보코디데이터 2.05, 지식정보관리자 2.032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2.49로 나타났고, 아직은 사서를 칭하는 또 다른 명칭

으로 생각되지 않고 있는 신디케이터를 제외하고 평균을 났을 경우 2.71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4.2.3 사서의 세부유형에 대한 인지도

고등학생들이 전문사서의 세부유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는 문헌정보학과 전공 대학생들조차 잘 알고 있지 않음 때문이다. 미시건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주제서비스 영역이 70여 개가 넘고, 퍼듀대학교 도서관도 100여 개가 넘는 주제분야로 세분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 채용사이트의 사서채용사례를 보면, 마케팅전문사서, 콘텐츠전문사서, 아키비스트, 청소년전문사서 등으로 다양하게 구인되고 있는 것을 알

〈표 3〉 도서관 사서였던 인물들의 인지 정도

항목	인지여부	N	%
노자	예	307	39.16
	아니오	477	60.84
에라토스테네스	예	199	25.38
	아니오	585	74.62
벤저민 프랭클린	예	239	30.49
	아니오	545	69.52
데이빗 흄	예	42	5.36
	아니오	742	94.64
조반니 카사노바	예	91	11.61
	아니오	693	88.39
교황 비오 11세	예	70	8.93
	아니오	714	91.07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예	36	4.59
	아니오	748	95.41
로라 웰치 부시	예	150	19.13
	아니오	634	80.87
마오쩌둥	예	296	37.76
	아니오	488	62.25
평균	예	158.89	20.27
	아니오	625.11	79.73

〈표 4〉 사서를 칭하는 다른 명칭에 대한 인지 정도

항목	전혀 들어본적 없음		들어본적 없음		보통		익숙함		매우 익숙함		M	Std
	N	%	N	%	N	%	N	%	N	%		
사서	50	6.38	29	3.70	82	10.46	114	14.54	509	64.92	4,279	1.183
정보전문가	224	28.57	175	22.32	217	27.68	107	13.65	61	7.78	2,497	1.25
정보코디네이터	334	42.60	197	25.13	160	20.41	66	8.42	27	3.44	2,05	1.13
신디케이터	501	63.90	163	20.79	84	10.71	27	3.44	9	1.15	1,571	0.897
지식정보관리자	332	42.35	207	26.40	157	20.03	64	8.16	24	3.06	2,032	1.107
평균	288.20	36.76	154.20	19.67	140.00	17.86	75.60	9.64	126.00	16.07	2.49	1.11
평균 (신디케이터 제외)	235.00	29.98	152.00	19.39	154.00	19.65	87.75	11.19	155.25	19.80	2.71	1.17

〈표 5〉 전문사서의 세부유형에 대한 인지 정도

항목	전혀 들어본적 없음		들어본적 없음		보통		익숙함		매우 익숙함		M	Std
	N	%	N	%	N	%	N	%	N	%		
법률주제전문사서	389	49.62	188	23.98	138	17.60	45	5.74	24	3.06	1,886	1.08
건강정보전문사서	383	48.85	196	25.00	125	15.94	54	6.89	26	3.32	1,908	1.102
음악주제전문사서	366	46.68	190	24.24	138	17.60	64	8.16	26	3.32	1,972	1.126
의학주제전문사서	371	47.32	182	23.21	131	16.71	65	8.29	35	4.46	1,994	1.173
도서관마케팅전문사서	319	40.69	162	20.66	159	20.28	96	12.25	48	6.12	2,224	1.266
대외협력전문사서	424	54.08	204	26.02	111	14.16	36	4.59	9	1.15	1,727	0.947
콘텐츠전문사서	265	33.80	153	19.52	175	22.32	124	15.82	67	8.55	2,458	1.325
어린이전문사서	227	28.95	114	14.54	174	22.19	161	20.54	108	13.78	2,756	1.415
청소년전문사서	221	28.19	116	14.80	168	21.43	155	19.77	124	15.82	2,802	1.439
노인전문사서	295	37.63	158	20.15	175	22.32	93	11.86	63	8.04	2,325	1.301
장애인전문사서	309	39.41	163	20.79	151	19.26	103	13.14	58	7.40	2,283	1.304
다문화대상전문사서	359	45.79	178	22.70	150	19.13	63	8.04	34	4.34	2,024	1.167
독서지도전문사서	315	40.18	151	19.26	163	20.79	99	12.63	56	7.14	2,273	1.298
도서관문화프로그램전문사서	321	40.94	159	20.28	165	21.05	86	10.97	53	6.76	2,223	1.273
사서교사	199	25.38	102	13.01	119	15.18	106	13.52	258	32.91	3,156	1.605
아키비스트	557	71.05	140	17.86	66	8.42	14	1.79	7	0.89	1,436	0.793
자료보존전문사서	413	52.68	163	20.79	128	16.33	53	6.76	27	3.44	1,875	1.121
국제표준연구전문사서	450	57.40	167	21.30	116	14.80	33	4.21	18	2.30	1,727	1.012
재교육설계전문사서	490	62.50	166	21.17	93	11.86	30	3.83	5	0.64	1,589	0.887
전산전문사서	452	57.65	163	20.79	102	13.01	49	6.25	18	2.30	1,747	1.049
정보조사제공전문사서	452	57.65	161	20.54	112	14.29	43	5.49	16	2.04	1,737	1.027
도서관활용교육전문사서	381	48.60	148	18.88	131	16.71	74	9.44	50	6.38	2,061	1.266
기타	773	98.60	8	1.02	3	0.38	0	0.00	0	0.00	1,018	0.159

수 있다. 본 질문은 학생들에게 전문사서에 대한 인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전문사서 유형은 공공도서관 직무분석결과(황금숙 외 2008), 국립중앙도서관 직무분석결과(안인자, 황금숙, 노영희 2008),

국내 주제전문사서의 직무분석연구(안인자 외 2008), 국내외 전문사서 수요분석연구(노영희, 안인자, 황금숙 2008) 그리고 전문사서 관련 선행연구들 등에서 언급된 전문사서 유형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문사서 유형에 대한 인지도는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사서교사가 3.1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 전문사서 2.802, 어린이전문사서 2.756, 콘텐츠 전문사서 2.45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사서 유형은 고등학생으로서 소속학교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쉽게 접하게 되는 전문사서유형인 것으로 보인다. 그 외 2점 이상의 전문사서 유형으로 도서관마케팅전문사서, 노인전문사서, 장애인전문사서, 다문화대상전문사서, 독서지도전문사서, 도서관문화프로그램전문사서, 도서관활용교육전문사서 등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2점 전후의 인지도를 보였다.

4.3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도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도는 총 7개의 문항으로 조사하였으며, 문헌정보학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문헌정보학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문헌정보학과를 알게 된 경로는 무엇인지, 문헌정보학과 및 도서관학과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4년제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면 2급정사서 자격증을 받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지, 사서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만 사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 등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문헌정보학과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등이다.

4.3.1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여부

설문대상자들에게 문헌정보학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으며, 약 50.77%가 문헌정보학과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2006년에 수행된 치위생과 대상 학과 인지도 조사(김화주, 임근옥, 김윤정 2006)에서 응답자의 44.7%가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과 비교하여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문헌정보학과가 약 40여 개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 문헌정보학과는 낮은 입학 경쟁률을 볼 때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비율로 결과가 나온 것은 긍정적이라 생각된다(〈표 6〉 참조).

또한 문헌정보학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모른다가 68.49%로 잘 알고 있다는 5.10%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문헌정보학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는데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문학과나 영어학과처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10여 년 동안 접해 온 과목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헌정보학과는 경우에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으며, 접한다 하더라도

〈표 6〉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 여부

항목	N	%	M	Std
예	398	50.77	1.492	0.5
아니오	386	49.24		

〈표 7〉 문헌정보학과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항목	N	%	M	Std
전혀 모름	265	33.80	2.037	0.922
모름	272	34.69		
보통	207	26.40		
잘 알고 있음	33	4.21		
매우 잘 알고 있음	7	0.89		

라도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을 통해 접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 또한 도서부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문헌정보학과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표 7〉 참조).

4.3.2 문헌정보학과를 알게 된 경로

한편 문헌정보학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면, 어떤 경로로 듣게 되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21.25%의 응답자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 순위로 대학모집요강 16.19%, 선배 및 교사를 통해서 14.26%,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9.11% 순으로 나타났다. 국문학이나 수학처럼 교과목이나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이 아니라 학교 밖으로부터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 모집요강 등을 통해서 문헌정보학과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헌정보학과만의 홍보전략을 세워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문헌정보학을 알게 된 경우는 9.11%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주변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수 있고 사서가 되기 위해 어떤 학과에 대해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국 초·중·고에 설치된 학교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표 8〉 참조).

기타에 응답된 것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였으

〈표 8〉 문헌정보학과를 알게 된 경로

항목	N	%
인터넷	231	21.25
서적	53	4.88
신문	29	2.67
라디오매체	8	0.74
대학 모집요강	176	16.19
선배 및 교사를 통해	155	14.26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99	9.11
기타	336	30.91

며, 그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친구 23명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이번 설문조사를 하면서 21명, 어디선가 들음 4명, TV 3명, 부모님 2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내용은 향후 설문지의 지문으로 추가되어야 할 항목으로 보인다 (<표 9> 참조).

4.3.3 문헌정보학과 및 도서관학과에 대해 관심정도

문헌정보학과 및 도서관학과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으며, 관

심 있다는 학생 수는 64명, 8.17%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평균은 2.098로 높지는 않게 나타났다(<표 10> 참조).

4.3.4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했을 때 주어지는 혜택

4년제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면 2급정사서 자격증을 받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지, 사서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만 사서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그 결과 4년제 문헌정보학과를 졸업

<표 9> 학생들의 문헌정보학 기타 접근 경로

항목	N	%
친구	23	36.51
설문조사	21	33.33
어디선가 들음	4	6.35
TV	3	4.76
부모님	2	3.17
과 검색	1	1.59
담임 선생님	1	1.59
도서부	1	1.59
상식	1	1.59
수업	1	1.59
이모가 문헌정보학과를 나오셔서	1	1.59
어쩌다가	1	1.59
직업체험	1	1.59
학과 알아보다가	1	1.59
학교진로시간	1	1.59

<표 10> 학생들의 문헌정보학 전공 관심 정도

항목	N	%	M	Std
전혀 관심 없음	240	30.61	2.098	0.965
관심없음	304	38.78		
보통	176	22.45		
관심있음	51	6.51		
매우 관심 있음	13	1.66		

했을 때 2급정사서 자격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0명으로 5.1%로 나타났다. 반면에 모르고 있다는 비율은 89.42%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또한 사서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만 사서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도서관 및 기록관 등에 취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잘 알고 있다는 학생 수는 77명으로 9.82%로 나타났고, 모르고 있다는 비율은 77.05%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이를 통해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관심도는 8% 정도로 매우 낮은 뿐만 아니라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했을 때 주어지는 혜택이나 취업진로에 대한 인식도 또한 10% 이하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계 및 문헌정보학계에서는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적극적 홍보뿐만 아니라 문

헌정보학과의 취업전망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4.3.5 문헌정보학과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에 대한 인지도

문헌정보학과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강의 내용은 최근 문헌정보학과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특히 고등학생에게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으면서도 비교적 이해하기 위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질의하였다. 그 결과 기록관리 및 고문헌자료관리를 배울 것이라는 응답이 2,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서관문화 프로그램 2,543, 도서관과 저작권 2,511, 독서지도 및 독서치료 2,473, 인터넷 정보자원의 활용 및 정보자원의 분류 및 목록이 각각 2,344 순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표 11〉 4년제 문헌정보학과 졸업 시 2급 정사서 자격증 발급에 대한 인지 정도

항목	N	%	M	Std
전혀 모름	430	54.85	1.624	0.862
모름	271	34.57		
보통	43	5.49		
잘 알고 있음	28	3.57		
매우 잘 알고 있음	12	1.53		

〈표 12〉 사서자격증 유무에 따른 취업 가능성 인지 정도

항목	N	%	M	Std
전혀 모름	357	45.54	1.899	1.051
모름	247	31.51		
보통	103	13.14		
잘 알고 있음	56	7.14		
매우 잘 알고 있음	21	2.68		

〈표 13〉 문헌정보학 전공의 수업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

항목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잘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평균	Std
	N	%	N	%	N	%	N	%	N	%		
3D프린터로 제품 만들기 (도서관무한상상실공간)	388	49.49	134	17.09	133	16.96	75	9.57	54	6.89	2.073	1.29
디지털콘텐츠(음악·게임·영상·이러닝콘텐츠 등)	322	41.07	130	16.58	162	20.66	118	15.05	52	6.63	2.296	1.316
Web 3.0과 도서관 3.0	430	54.85	172	21.94	114	14.54	50	6.38	18	2.30	1.793	1.056
독서지도 및 독서치료	271	34.57	134	17.09	179	22.83	137	17.47	63	8.04	2.473	1.332
기록관리 및 고문헌자료관리	265	33.80	120	15.31	178	22.70	122	15.56	99	12.63	2.579	1.411
취약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서비스	380	48.47	210	26.79	129	16.45	43	5.49	22	2.81	1.874	1.052
빅데이터와 시맨틱웹	501	63.90	180	22.96	71	9.06	26	3.32	6	0.77	1.541	0.849
도서관과 저작권(지적재산권)	265	33.80	135	17.22	181	23.09	124	15.82	79	10.08	2.511	1.36
인터넷 정보자원의 활용	300	38.27	145	18.50	171	21.81	105	13.39	63	8.04	2.344	1.32
정보자원의 분류와 목록	315	40.18	135	17.22	154	19.64	109	13.90	71	9.06	2.344	1.361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263	33.55	123	15.69	181	23.09	143	18.24	74	9.44	2.543	1.361
도서출판과 웹퍼블리싱	387	49.36	177	22.58	125	15.94	72	9.18	23	2.93	1.938	1.132
차세대 디지털도서관	354	45.15	158	20.15	158	20.15	75	9.57	39	4.97	2.091	1.215
이용자맞춤형서비스 개발	406	51.79	180	22.96	119	15.18	52	6.63	27	3.44	1.87	1.109

4.4 문헌정보학과 진로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헌정보학과 및 도서관학과의 진로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진출할 수 있는 직장으로 생각되는 곳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다. 총 24개의 취업가능한 기관들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공공도서관이 8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가도서관 82.53%, 대학도서관 80.23%, 학교도서관 76.15%, 어린이도서관 75%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은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는 분야로서 도서관을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보유통기관이나 기록관, 각종 지식정

보유통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의 진출가능성에 대해서는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었다(〈표 14〉 참조).

또한 이 중에서 취업하고 싶은 분야를 상위 3개까지만 선택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방송국 자료실이 13.82%(32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가도서관이 12.20%(287명), 학교도서관 8.33%(196명), 대학도서관 7.61%(179명), 공공도서관 6.38%(150명), 포털업체 6.34%(149명), 출판사 5.65%(133명) 순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표 14〉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

항목	N	%
국가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647	82.53
대학도서관(464개)	629	80.23
공공도서관(865개)	661	84.31
어린이도서관(약 85개 공공어린이도서관)	588	75.00
특수도서관(병영도서관 1,663개, 교도소도서관 50개, 장애인도서관 37개, 병원도서관)	563	71.81
학교도서관(11,405개)	597	76.15
전문도서관(연구소자료실 포함 600여 개)	569	72.58
국가수준의 정보유통기관(KERIS, KISTI)	331	42.22
대학교(문헌정보학 관련 교수 및 연구원)	501	63.90
문헌정보학 관련 분야 연구기관	297	37.88
방송국 자료실(KBS, SBS, MBC 등)	115	14.67
기록관(대통령기록관, 국가기록원)	106	13.52
기록물 자료실(정부부처 산하 기록실)	91	11.61
DB(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콘텐츠개발업체	44	5.61
도서관자동화시스템 업체	63	8.04
도서관목록(MARC) 전문업체	57	7.27
대행사(저널, DB, 도서, 멀티미디어 등 유통기관)	22	2.81
서점(온·오프라인 서점 포함)	63	8.04
출판사	64	8.16
포털업체(NAVER, DAUM 등)	168	21.43
도서관용품 및 비품업체(RFID, 도난방지시스템, 자동반납시스템)	176	22.45
일반회사 정보관리부서	201	25.64
문헌정보학 관련 학회(도서관협회, 기록관리협회 등)	241	30.74
독서지도 관련 기관	248	31.63
기타	54	6.89

〈표 15〉 학생들의 문헌정보학 취업 희망처

항목	N	%
국가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287	12.20
대학도서관(464개)	179	7.61
공공도서관(865개)	150	6.38
어린이도서관(약 85개 공공어린이도서관)	89	3.78
특수도서관(병영도서관 1,663개, 교도소도서관 50개, 장애인도서관 37개, 병원도서관)	38	1.62
학교도서관(11,405개)	196	8.33
전문도서관(연구소자료실 포함 600여 개)	56	2.38
국가수준의 정보유통기관(KERIS, KISTI)	112	4.76
대학교(문헌정보학 관련 교수 및 연구원)	108	4.59
문헌정보학 관련 분야 연구기관	41	1.74
방송국 자료실(KBS, SBS, MBC 등)	325	13.82
기록관(대통령기록관, 국가기록원)	116	4.93

항목	N	%
기록물 자료실(정부부처 산하 기록실)	45	1.91
DB(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콘텐츠개발업체	56	2.38
도서관자동화시스템 업체	20	0.85
도서관목록(MARC) 전문업체	14	0.60
대행사(저널, DB, 도서, 멀티미디어 등 유통기관)	20	0.85
서점(온·오프라인 서점 포함)	79	3.36
출판사	133	5.65
포털업체(NAVER, DAUM 등)	149	6.34
도서관용품 및 비품업체(RFID, 도난방지시스템, 자동반납시스템)	20	0.85
일반회사 정보관리부서	39	1.66
문헌정보학 관련 학회(도서관협회, 기록관리협회 등)	34	1.45
독서지도 관련 기관	35	1.49
기타	11	0.47

4.5 인지도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도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라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학년에 따라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관심도에 차이가 있는지, 권역별로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관심도 및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인지여부가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4.5.1 학과인지도에 대한 성별차이

문헌정보학과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에 대해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나, <표 1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도값이 0.225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헌정보학과 인지도에 대해 성별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5.2 학과관심도에 대한 학년별차이

학년에 따라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관심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1학년이 24명, 9.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학년이 21명, 7.56%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관심도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유의도는 0.533으로 집단간 유의한 인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참조).

<표 16> 성별에 따른 문헌정보학과 인지도 차이

항목		예	아니오	Levene Test Statistics	P-value
남자	N	175	232	1.473	0.225
	%	43.00	57.00		
여자	N	223	154		
	%	59.15	40.85		

〈표 17〉 학년에 따른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관심도 차이

항목		전혀 관심없음	관심없음	보통	관심있음	매우 관심있음	Levene Test Statistics	P-value
1학년	N	78	92	51	20	4	0.39	0.533
	%	31.84	37.55	20.82	8.16	1.63		
2학년	N	92	105	60	14	7		
	%	33.09	37.77	21.58	5.04	2.52		
3학년	N	70	107	65	17	2		
	%	26.82	41.00	24.90	6.51	0.77		

4.5.3 권역별 문헌정보과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도 차이

권역에 따른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여부 및 관심정도를 분석하였다. 크게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에 따라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영남권이 5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부권이 54.92%, 수도권 48.2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호남권이 46.2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사도 값이 0.448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

지도는 지역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표 18〉 참조).

또한 권역별로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관심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중부권이 2.2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호남권 2.218, 수도권 2.058, 영남권 1.995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의수준 0.05하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보았을 때 인지도에 차이는 없지만 관심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를 통해 보다 깊이 있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표 19〉 참조).

〈표 18〉 권역에 따른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도 차이

항목		들어본적 있음	들어본적 없음	P값
수도권	N	167	179	0.448
	%	48.27	51.73	
중부권(충청, 강원)	N	67	55	
	%	54.92	45.08	
영남권	N	109	88	
	%	55.33	44.67	
호남권(제주포함)	N	55	64	
	%	46.22	53.78	
DF1	DF2	F-Value	P-value	
3	780	0.886	0.448	

〈표 19〉 권역에 따른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관심도 차이

항목		전혀 관심없음	관심없음	보통	관심있음	매우 관심있음	M	Std	P값
수도권	N	103	150	70	16	7	0.931	2.058	0.000
	%	29.77	43.35	20.23	4.62	2.02			
중부권	N	28	46	36	12	0	0.925	2.262	
	%	22.95	37.70	29.51	9.84	0.00			
영남권	N	67	78	39	12	1	0.912	1.995	
	%	34.01	39.59	19.80	6.09	0.51			
호남권	N	42	30	31	11	5	1.151	2.218	
	%	35.29	25.21	26.05	9.24	4.20			
DF1		DF2		F-Value		P-value			
3		780		7.744		0.000			

4.5.4 학과인지도가 학과관심도에 미치는 영향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도가 학과에 대한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교차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헌정보학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학생 집단은 평균 2.44의 값으로 관심이 있다고 하였고, 들어본 적이 없는 학생집단의 1.746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유의도 값은 0.000으로 학과인지도가 학과관심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학과인지도와 학과입학경쟁률간에도 유사한 관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표 20〉 참조).

기타 문헌정보학과, 사서, 지식정보관리사, 도서관 등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을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정보학과에 대해 이번 설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고,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후 하는 일, 그리고 받게 되는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들은 문헌정보학과 및 도서관 홍보에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표 21〉 참조).

〈표 20〉 문헌정보학과 인지도가 학과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

항목		전혀 관심없음	관심없음	보통	관심있음	매우 관심있음	M	Std	P값
들어본적 있음	N	64	159	123	40	12	2.44	0.976	0.000
	%	16.08	39.95	30.90	10.05	3.02			
들어본적 없음	N	176	145	53	11	1	1.746	0.817	
	%	45.60	37.56	13.73	2.85	0.26			
		자유도	T-value	P-value	평균차	95.0% 하한	95.0% 상한		
		등분산이 가정됨	782	10.773	0	0.694	0.567	0.82	
		등분산이 가정되지않음	766	10.802	0	0.694	0.568	0.82	

〈표 21〉 기타 문헌정보학과, 사서, 지식정보관리자에 대한 자유의견

항목	N	%
설문을 통해 문헌정보학과에 대하여 처음 알게 되었음	11	64.71
문헌정보학과 졸업 후 하는 일이 궁극함	3	17.65
문헌정보학과에 대하여 홍보가 필요함	2	11.76
문헌정보학과 졸업 후 받는 월급이 궁극함	1	5.88

5. 논의 및 향후연구

5.1 논의

본 연구는 급변하는 대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를 조사할 뿐만 아니라 문헌정보학과의 진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의 연구 질문으로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고등학생들의 사서에 대한 인지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세 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네 문항간의 신뢰성 검정결과로 Cronbach 알파값은 0.92로 나타났다. 사서였던 인물들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파악한 인지도는 20.27%로 나타났으며, 사서를 칭하는 다른 명칭을 통해서 파악한 인지도는 5점 만점에 2.49였다. 또한 전문사서의 세부유형에 대한 인지정도는 평균 2.10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은 무의식중이던 토론을 통해서건 사서에 대한 직업에 인지하는 정도를 알아보려고 한 것이며 사서에 대한 관심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둘째, 고등학생들의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응답자의 50.77%가 문헌정보학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작업치료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8.33%만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결과(송민옥 외 2010)와 비교하여서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문헌정보학과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는 5.1%에 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보면 치위생과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에 대해 응답자의 44.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김희주, 임근옥, 김윤정 2006)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문헌정보학과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나 문헌정보학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볼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내용이 풍부한 홍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초·중·고에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거의 없으며,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사서가 약 50% 정도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며, 뿐만 아니라 10분 거리 안에 도서관을 설치한다는 정책아래 공공도서관의 수가 최근 5년간 300여 개가 넘게 설치되었고, 작은도서관 수도 5천여 개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사서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이유를 밝혀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문헌정보학과의 진로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후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직장에 대해 공공도서관, 국가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높은 비율로 도서관을 선택하고 있었다. 반면에 취업하고 싶은 직장은 방송국 자료실(KBS, SBS, MBC 등), 국가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포털업체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국자료실이나 포털업체의 경우 진출가능한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취업하고 싶은 분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문헌정보학과에 진로에 대한 인지도는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문헌정보학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문헌정보학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있다는 학생들의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관심도 평균은 2.44로 들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의 1.74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도값은 0.000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헌정보학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학생들이 문헌정보학과를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문헌정보학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도서관계 및 문헌정보학계의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5.2 향후연구제안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총 7개의 인문계고등학교 및 1개의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으며 임의표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

과를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들의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식으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한국도서관협회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또는 도서관연구소에서 전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총 749명이 응답하였으며, 일단 배포된 설문지는 거의 회수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가 개인 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는 예산 등 많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도서관계 전체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다. 본 설문을 하는 과정 자체가 문헌정보학과 및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후 진출할 수 있는 진로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 번의 설문으로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문대상 학교에 대해서 매년 또는 격년으로 동일한 설문을 수행함으로써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설문지는 최초로 개발된 것으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앞으로 본 연구자를 포함한 여러 연구자에 의해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는 설문을 학교도서관과 협력하여 시행하는 것도 권장될 수 있다고 본다.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인식을 조사한 연구(이종문 2009)나 취업전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안인자 외 2013)는 몇

몇 있으나,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헌정보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본 연구가 국내 최초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연구가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가 우리 문헌정보학계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결 론

대학학내외 환경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 소속된 학과로서 문헌정보학과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과제가 제기되었다. 도서관은 국민의 지식수준에 영향을 주는 지식인프라에 해당이 되는 사회적 기반시설이며, 이 곳에는 사서라는 전문직이 배치되어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집단이나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서의 사회적 기여도나 전문성이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과에 대해 올바르게 알리고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후 진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명확히 알림으로써 진로선택 중 하나의 길로 도서관계 및 지식정보유통분야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7개의 인문계고등학교 및 1개의 특성화고

등학교로부터 총 749건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였던 인물, 사서의 또 다른 명칭, 전문사서 유형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파악한 사서의 인지도는 50% 이하로 나타났다.

둘째,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도는 50% 수준으로 나타났고,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관심도도 2.098로 나타났다. 또한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했을 때 주어지는 혜택으로 2급 정사서 자격증 수령여부, 사서자격증이 있어야 사서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 도서관계 및 기록관 등에 취업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인지도도 보통 이하로 나타났으며, 문헌정보학과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도 역시 5점 만점에 2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헌정보학과의 진로에 대한 인지도는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선호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정보학과에 대해 들어본 학생들이 문헌정보학과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으며, 따라서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가 고등학생들에 대한 우리 문헌정보학과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연구가 전국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사서 및 도서관의 위상을 높이고 그 역할을 강화하는데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1] 김계현. 1995.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 [2]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0.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3] 김재승. 2005. 『중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 [4] 김충기. 1986.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성원사.
- [5] 김혜경. 2011. 『도서관에 대한 사회인식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 [6] 김희주, 임근옥, 김윤정. 2006. 치위생과 학생들의 입학전 학과 인지도와 만족도 및 취업의식에 관한 조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6(2): 115-127.
- [7] 나이라, 염인경. 2012. 한국 고등학생의 전문대학 선호학과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저널』, 23(3): 1-13.
- [8] 노영희 외. 2013. 문헌정보학과 재학생의 취업전망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4): 143-167.
- [9] 노영희, 안인자, 황금숙. 2008. 국내·외 전문사서 수요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2): 189-208.
- [10] 박향숙. 2004. 『고3학생의 진로결정요인에 따른 진로의식성숙과 진로의사결정』.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11] 서병도, 민정식, 권태윤. 2012.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과선택요인이 전공체험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6(3): 135-141.
- [12] 송민옥 외. 2010.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작업치료과 및 작업치료에 대한 인지도 조사. 『대한건강과학학회지』, 7(1): 69-83.
- [13] 안성대. 2002. 『중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직업흥미와의 관계: 가정환경과 계열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14] 안인자 외. 2008. 국내 주제전문사서의 직무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533-549.
- [15] 안인자 외. 2014. 사서직 취업률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27-52.
- [16] 안인자, 황금숙, 노영희. 2008. 직무분석을 통한 국립중앙도서관사서의 핵심업무 및 전문사서 유형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5(1): 129-148.
- [17] 이상선. 2004. 『고등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 [18] 이종문. 2009.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선호 직업 및 준비성 실태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473-490.
- [19] 장덕현, 강은영. 2012. 부산시민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인문학논

- 충』, 30: 201-223.
- [20] 조병주, 최정희, 오동근. 2009. 취업력 제고의 관건으로서 개인강점 지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4): 243-259.
- [21] 최병우, 최정희, 김형기. 2008. 경력결정요인과 성격유형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3): 53-71.
- [22] 한국고용정보원. 201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08-2018』.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23] 한국교육개발원. 1992. 『진로성숙도검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24] 황금숙 외. 2008. 직무분석을 통한 공공도서관 사서 직무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2): 407-427.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Gye Hyun. 1995. *Counseling Psychology*. Seoul: Hakjisa.
- [2] Kim, Bonghwan, Kim, Byungseok and Jung, Chulyoung. 2000. *Career Counseling in School*. Seoul: Hakjisa.
- [3] Kim, Jae-Seung. 2005. *A Study on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Awareness*.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wandong University.
- [4] Kim, Chungki. 1986.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Education*. Seoul: Sungwonsa.
- [5] Kim, Hye-Gyeong. 2011. *A Study on the Social Recognition of Library*. Ph.D. diss., Chungang University.
- [6] Kim, Hwa-Ju, Lim, Kun-Ok and Kim, Yun-Jeong. 2006. "A Study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School Subject Degree of Recognition Before Admission and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Education*, 6(2): 115-127.
- [7] Na, Ira and Yeom, Inkyung. 2012. "A Study on the Preferred Department of Two-Year College of Korea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23(3): 1-13.
- [8] Noh, Younghee et al. 2013. "LIS Employment Prospects: LIS Students' Perspectiv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4): 143-167.
- [9] Noh, Younghee, Ahn, In-Ja and Hoang, Gum-Sook. 2008. "A Study on Analyzing Demands for Professional Librarians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2): 189-208.
- [10] Park, Hyangsook. 2004. *Career Consciousness Matur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in accordance with the Career Decisionmaking Factors of High School Senior*. M.A. thesis, Graduate School

- of Education, Ajou University.
- [11] Seo, Byoung-Do, Min, Jeong-Sik and Kwon, Tea-Yoon. 2012. "The Effects of High School Students' Criteria for Selecting Colleges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Activities of Experiencing Major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6(3): 135-141.
- [12] Song, Min-Ok et al. 2010. "A Study on the Recognition for Occupational Therapy of Highschool Students in Busa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ealth Sciences*, 7(1): 69-83.
- [13] Ahn, Sungdae. 2002.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 Inventory and Vocational Interest of Middle School Students*.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kuk University.
- [14] Ahn, In-Ja et al. 2008. "A Study on the Job Analysis of the Subject Specialist Librarian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4): 533-549.
- [15] Ahn, In-Ja et al. 2014.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Librarianship Employ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1): 27-52.
- [16] Ahn, In-Ja, Hoang, Gum-Sook and Noh, Younghee. 2008. "A Study on Analyzing out the Key Tasks and Developing the Professional Type of National Librarians through Job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5(1): 129-148.
- [17] Lee, Sang-Seon. 2004. *A Study o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Awareness*.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wandong University.
- [18] Lee, Jong-Moon. 2009. "An Analysis on Preferred Occupation and Its Readiness to Students in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473-490.
- [19] Chang, Duk-Hyun and Kang, Eun-Young. 2012. "Citizen Perceptions and Demands on Public Libraries in Busan." *Journal of Humanities*, 30: 201-223.
- [20] Cho, Byung-Ju, Choi, Jung-Hee and Oh, Dong-Geun. 2009. "Personal Strengths Knowledge is the Key to Employability: Implication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Career Development Education for Its Studen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4): 243-259.
- [21] Choi, Byung-Woo, Choi, Jung-Hee and Kim, Hyong-Gi. 2008. "A Study on the Factors of Career Decision-making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3): 53-71.
- [22]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10. *Medium and Long-Term Forecasts for Manpower Demand and Supply 2008-2018*. Seoul: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 [23]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1992. *Career Maturity Inventory*.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24] Hoang, Gum-Sook et al. 2008. "A Study on the Tasks of Public Librarians based on Job Analysi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2): 407-427.